

무주 학생들이 국가대표 선수단 선발

알파인 스키 최태희 선수 · 알파인 스노보드 김상윤 · 정서영 학생

무주군은 알파인 스키 종목의 최태희 학생(단국대 1학년·설천고 출신)이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 김상윤(무주고 3학년), 정서영(무주고 3학년) 학생은 알파인 스노보드 종목의 국가대표 예비군으로 선발됐다.



최태희

김상윤

정서영

국종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으며 국가대표 예비군으로 발탁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 출신 학생들이 국가대표 선수단에 선발돼 무척 자랑스럽다”며 “무주와 전북자치도를 빛내고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선수들의 기운찬 내일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내 스키 등 동계스포츠 선수들도 점차 우수한 선수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의 동계스포츠(스키·스노보드·바이애슬론 등) 선수는 14개 학교 66명으로 매년 평균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훈련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무주군 선수단은 105회 동계체육대회에서 전북자치도가 획득한 62개 메달(금15, 은22, 동25) 중 43개 메달(금11, 은15, 동17)을 획득해 전국 4위에 오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에 따르면 이들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서 정한 개인기록과 선발전 순위 및 각종 대회의 누적 순위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선발됐으며 앞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국제 대회에 출전하거나 국내·외 합숙 훈련에 참여하는 등 국가대표 선수단에 특화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최태희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스키를 타기 위해 대전에서 무주 구천초등학교로 전학왔으며 이후 설천중·고등학교를 거쳐 스키 꿈나무로 성장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FIS(Federation Internationale de Ski-국제스키연맹)컵 국제스키대회 여자부 회전 종목에서 1위(금메달)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최태희 선수는 2023~2024 국가대표로 105회 동계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무주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스노보드를 타기 시작해 올해 열린 국제스키연맹 주관 내셔널 챔피언십(National Championships) 대회에서 7위에 오르는 등 두각을 나타내왔으며 정서영 학생은 105회 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를 비롯해 대한스키협회장배 및 전

여름방학 인재육성사관학교 참여 학생 모집

무주군, 5월 8일까지 접수

무주군이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인재육성사관학교’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참여 희망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재육성사관학교’는 무주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학습 의욕과 성취도를 높이고 실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여름·겨울방학 동안 기숙학원 비용을 지원(1인당 3백만 원)에서 80% / 국민기초생활수급 계층 100%하는 것으로, 대상은 4월 29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과 학생의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 중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중학교 2학년=겨울학기, 고등학교 3학년=여름학기에 한하여 지원)이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서는 이들을 토대로 여름학기 대상자 24명(중학교 3학년 6명, 고등학교 1~3학년 18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참가 희망 학생은 공통기준과 지원 우선순위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5월 8일까지로 인재육성사관학교 신청서와 성적확인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주소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각 1부)를 갖춰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사무국으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동투로 326-36)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5월 13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모집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알림 마당을 통해 확인하거나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063-320-2139)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은 “방학 동안 여러 지역의 아이들과 공부하면서 학습 동기와 실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도농 교육격차를 줄이고 우수 인재 키우는 큰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장수군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첫 시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에 따

른 활동비(보조금)를 지원한다.

축종별 △한·육우 2만5천원 △돼스 5만원 △돼지 5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인 신청서, 가족사육업 허가증, 감액 기준 동의서,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등을 첨부해 오는 30일까지 축산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돼지의 경우 하반기 접수 예정)

향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농업법인인 신청 활동 이행 및 활동별 증빙서류를 모바일 웹으로 제출해야 하며, 농식품부 및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활동별 증빙서류 확인 및 현장 이행점검 등을 거쳐 지급액 산정 후 활동비(보조금)를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지난 26일 진안군 성수면을 방문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개발이 이루어진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앞서 실시한 간담회에서는 진안, 무주, 장수 청년농업인 등으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진안 방문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후 개발사례 현장 확인

진안군은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성수면을 방문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개발이 이루어진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은 농림부가 올해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계획을 앞두고 기존 정비 지역 중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점검해 정비계획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농림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점검지인 성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지구에는 지난 21016년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2019년 사업을 완료했으

며, 현재 스포츠 공감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정비 후 개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장 점검에 앞서 실시한 간담회에서는 농림부 농지과장으로부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진안, 무주, 장수 청년농업인 등으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림부의 정비계획에 맞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로 활용하여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에 함양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파견

장수군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함양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6명이 장수군 농가에 파견돼 사과 적화작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지난 16일 함양군에서 진행된 장수농협-무주농협-함양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력교류를 위한 협약의 결과로, 협약은 법무부의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의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근무장소의 탄력적 운용 가능 규정’에 근거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그동안 관내 근로자가 가능했던 계절근로자의 인건 시·군 인력교류 확대가 기대되며, 지자체별 유휴인력 발생 시 인력교류를 통해 적기 적소에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들은 함양농협 수송으로 장수군 만남의 광장으로 집결했고, 이어 장수농협에서 농가까지 인솔해 안전한 이동과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최훈식 군수는 “올해도 농번기 필요인력을 제때 확보하고 급급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도 30명의 근로자가 배정돼 본격적으로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책임근로자의 비중이 40%를 차지해 숙련 근로자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건강한 숲 가꾸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

진안군은 숲 생태 건강성 증진을 위해 33억4,200만원을 투입해 1,770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주의 신청에 의하여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의 수목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을 시행한다.

올해는 조림지 가꾸기 1,100ha, 어린나무 가꾸기 400ha, 큰나무가꾸기 60ha, 산물수집 60ha, 공익림 가꾸기 9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60ha 등 산림의 임량별, 기능별로 단계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박춘성 산림과장은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증진시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면서 얻어지는 공기정화 작용과 경관의 변화를 제공하는 등 이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산림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부모임 '경세통' 시작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함명재)이 2024년 교육사업으로 공부모임을 시작했다.

모임명인 ‘경(經)세(世)통(通)’은 사회적경(經)제로 세(世)상과 소통(通)한다는 의미이다.

상반기 ‘경세통’에서는 농촌인구 과소화와 고령화의 문제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시스템과 운영을 학습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와 내용을 살핀다.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변재관 대표의 ‘지방정부가 만들어본 지역사회 돌봄’ 강의와 책 ‘김용익의 돌봄이야기’ 발제를 통해 토론하고 6월 7일에는 전주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견학할 예정이다.

모임은 4월 26일 금요일 오전 7시를 시작으로 6월 7일 금요일까지 총 6회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공부 후에는 간단한 조식도 제공한다.

진안군민들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문의는 전화(063-432-9751)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